

우리 조국을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신 그 업적 영원불멸하리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주여해드린 5돐에 즈음하여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또다시 친화를 드르릉 울었다.

우리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 상 중장 거리 전략원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완성성공!

설령을 내뿜으며 미란대공으로 치솟은 『북극성』관도탄의 자랑찬 비행 운이 눈부시게 어려운다.

이 나라의 아들딸로 태어난 궁지로 가슴부풀고 이 조선의 강대한 힘에 대한 자부심에 넘친다.

2월의 맑고 푸른 하늘기에 출렁 불騰성은 고대로 광명성성을 맞으며 더욱으로 강속의 강과 축소하고자 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이다.

천하를 친감하는 세계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표시하고 우리를 감히 어찌보려는 원쑤들에게 또 다시 드릴 강 힘을 만끽해 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오늘도 봄날의 희망과 퍼포는 같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고무해주시며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병도사 김정일대원수님,

그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주거드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며 우리 조국을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맞내어 주신 불세 출의 범장의 불멸의 업적을 기습드롭게 들어就是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의 혁명사상이 고령성전이었으며 정치파령이 정지방식이었다.

백두대간에서 탄생하여 10대 그때를 전감하는 힘을 품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타락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파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선군을 위대한 병도사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 고령성전이었으며 정치파령이 정지방식이었다.

백두대간에서 탄생하여 10대

그이는 조선의 힘, 영원한 승리의 가치

에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혁명의 종대는 영원한 길동무였고 제일동지였다.

그이께서 주체 49(1996)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용경정수 105mm포차단에 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세기신것은 백두의 전통을 및 나에게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혁명을 오직 선군의 길로만 전진시키시며는 투철한 신념의 불신이었다.

교난의 명예의 나날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참으로 영원할 힘을 찾은 고 나이에 힘을 힘들여 시련의 시기였다.

밖으로는 미세를 두드려 미로하는 력사의 반동들이 우리에 대한 경제봉쇄 등에 미쳐 날뛰면서 베를

지어 달려들고 암으로는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사람들의 생존이 무섭게 위험당하면 간고한 나날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험난한 사연을 헤쳐나가면서 일상에서 일상으로 전진시키는 힘을 찾았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여있는 중대한 갈릴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타박출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고 하신

이 교사는 조선은 영원히 선군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기아이

한수 할수 있다는 것을 알린 정업한 선언이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세상을 놀라우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정력으로 혁명의 바탕에 미세의 경계망과 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한 힘을 찾았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미법한 선군령도는

전군집임상주의의 가치밀에 군역 강화에서 일대 전성기가 펼쳐질수 있지 한 큰 분원들이 있고 치열한 밤이 대결과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 영웅조선, 주체조선의 분래가 침입과 파괴되며 한 원동력이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 라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높이 오고 비가 와도 가지고 가지 말과 전쟁필기 가로놓여서 서술없이 다 찾아가셨다. 험준한 산발들의 깊은 어둠속에서 새벽고요속에 자신의 로고를 묵묵히 묻으면서 병사들을 찾고자 했던 우리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를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으려.

진정 그것은 그 뿐만 아니라 수수한 애전복을 입으시고 애전식

사, 애전리발, 애전옹과 같은 혁명 일화들을 날기시며 유휴도 승용차에서 서의 폭점, 싸지도 한데 헤기밥으로 하신 위대한 장군님.

절대불변의 신념이 고지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훈장을 유

다른 사항과 결정을 담아 부른다.

그럼 때마다 빨찌산식으로 선군혁명을 행도화로 우뚝 군대와 민족을 찾고자 했던 우리 장군님의 헌신을 확립한 철학적 체계를 갖추고 공

직과 방어에도 다같이 준비된 무적

평승의 헤드수현금으로 강화할

것되었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신념

으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주체 97(2008)년 12월 역사의 땅 강

선을 찾으시어 새로운 혁명적 대고

조의 물길을 지어주시고 그 물길이

나라에 탄생지로 하시기 위해

이제 걸고 걸수호의 성역을 찾은

군민대단결이 이루어진것도 위대한

인민의 운명공통체로 군과 민족의

불분체로 군민의 헌신을 찾은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사위를

찾아온 힘으로 헤어지지 않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를 찾으시면서 찾으신 단위

들이 그 열마나 많은가.

그나마 빨찌산식으로 헤어지지

않았지만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 힘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헤어지지 않았다.

그 힘으로 헤어지지 않았다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신념의 분출

뜻 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 밀영 결의 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결을 위한 전민총동력전의 진군길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 온 나라 천민들은 혁명의 대성인 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향향의 위엄을 반풀어 우러 식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총정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완성해나갈 신념의 대회가 13일에 진행되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창왕한 미래를 암으시고 백두광명성으로 만행하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의 위업의 승리 위해 헌신하시며 민족민족의 투구번영을 위한 역년기들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행 없는 정보의 정이 백두산밀영에 차넘치고 있었다.

밀영상공에는 『광명성절경축』, 『수령복·장군복』, 『걸사옹위』, 『일설단경』이라는 글들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회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 인민보안상 최무현동지, 내각부총리 겸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 최두철동지와 함께, 무역,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정병들, 216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 광강도와 삼지연군의 일군들, 풍물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의연설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이하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한평생 혁명의 불을 기울여 드시고 백두의 대업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가슴뜨겁게 들이켜보며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걸기를 다지고 있다.

그는 백두의 갈바람이 휘몰아치는 천고의 밀원에서 만행하시여 혁명가로 성장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역사앞에 영원불멸한 영적을 살아내시겠다고 하면서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향향의 위업을 반풀어 우러 식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총정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백두산, 위대한 장군님의 백두산으로 존엄阐明은 조종의 산 백두산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령의 위인인 이신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운동지를 높이 모시여 주체혁명의 영원한 등대로 빛을 뿐리고 있다.

세상이 열번번 뒤집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운동지를 절래책으로 신뢰하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걸사옹위하며 전당파은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운동지의 유타직명도제를 더욱 청진히 세워나가겠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1차 전당초기당위원장대회가 제시한 강명적파업을 높이 달고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시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강원도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당사업을 진공적으로 끌어오늘의 전민총동력전에서 지역자강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펴려나가겠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맹사복무정신을 제질화하고 신천해나가는 일민의 참된 충복, 이심작착의 일본제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도록 하겠다.

우리 당사업을 진공적으로 끌어오늘의 전민총동력전에서 지역자강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펴려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끌어온다. 신화와 영광으로 아름다워져나가겠다.

인민군내에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유일직령군체제를 세우기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패멸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정의가 불의를 라승하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오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정의와 부정의 사이에 벌어지는 비장한 대격鬥들이 세계에 펼쳐주는 충격이 그것이다.

이 행성에 유일무이한 사회주의 보두 조선을 향해 가해지는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공에는 장구한 인류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입지지 있어 분분히 있는 것이다.

동방의 해강국, 우주강국으로 우뚝 솟아 그 위엄을 만천하에 펼치고 있는 백두산대 국은 정의의 기치 높이 자주와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부정의를 선군의 죽종으로 차지없이 쳐 깊어 있다.

이 행성의 지축을 울리며 내닫는 만리마의 발굽소리와 더불어 날에 날마다 세기와 주름을 베어온 바위 대혁신, 신화적인 기적을 창조해 가는 우리 공화국에 세상사람들은 눈마음과 선량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동시에 온갖 유틸리하고 비열한 반공화국 고립 압살을 세상 하면 유통군에 걸친 정의를 키스를 수 없다는 것은 벌어진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정의에 역행하는 불의는 민심의 배격을 면치 못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2016년 남조선 사회를 짚었는 4자성어로 『군주민수』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백성이 물이고 임금은 배이므로 강물의 힘으로 배를 끌어가도 하지 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군주민수』는 절친이후 민심에 역행하여 반민족적이고 반동적임을 입증하는 4자성어로 『군주민수』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므로 강물의 힘으로 배를 끌어가도 하지

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초불은 보잘것 없어보이지만 정의로운 민심이 주어든 초불은 청백으로 칭법하는 무서운 힘이다.

작고 양악하다는 초불이 모이고

여 성의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힘은 바로 정의에 있다.

하나가 열, 열이 빅, 천, 만을 뛰어 넘어 1000만명 이상이 주어진 초불은 그대로 불의를 불사르는 활화산이다.

남조선전역에 퍼져나온 초불을 끼워보고 박근혜와 그 일당이 무슨 말방법을 하지 않았던가.

두달도 채 안되는 동안 무려 세차례나 『대국민단회』를 열어 놓았는데 뛰어짜고 기단적인 『사과』와

변명, 위협과 응원, 생양지와 버리기 등 범의로 허파한 것을 하였다.

그러나 정의의 열원인 초불과 정의의 범정인 민심에서는 그 모든 것이 통할수 없었다.

무분별한 전쟁불장난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침 핵전쟁 연습 반대 전 민족비상대 책 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금은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역사적인 호소는 날을 따라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광장을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계파의 지향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북침전쟁소동이 날로 우습게 벌어져 세상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새해 벽두부터 각종 북침전쟁소동으로 정세를 격화시켜온 피폐파당이 오는 3월 미국과 함께 『기리즈트』, 『독수리』를 활용해 군사사연습을 사상 최대 규모에서 진행하겠다고 부산을 퍼우고 있다.

피폐군부호전당들은 올해 합동군사연습을 피폐합동참모본부의 주관하여 규모를 대폭 늘여 피폐군에서는 대대급이상 유태공군부대, 구분대들이 대거 참가한 『교란』, 『과격』한다는 『4D전개계획』과

제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B-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22』, 『F-35』스没钱스킬기들이 무리로

돌입되며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서는 미리 전전하여 놓은 『F-

</